



■ 작가 소개: 파란달

감성 시인 파란달입니다. 푸른 밤 그윽하게 빛나는 달빛을 사랑합니다. 인스타그램(@blue moontaker)에서 주로 활동하며 n행시와 자유시를 씁니다. 일상의 조각을 감각적으로 포착해 유쾌한 재미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 책 소개: 축축한 감성시와 촌철살인 n행시

시들한 그대의 하루를 축축하게 물들일 판타스틱 감성시가 찾아갑니다. **묵승 아씨와 황도령의 팽긋한 만남, 한여름 밤 모기의 슬픈 짝사랑, 학벌 설을 위로하는 서울대 삼행시, 매혹적인 김 마담과 전통찻집 힐링 데이트, 머릿속이 뽀뽀 보이는 투명한 가족 이야기**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센스만점 감성시에 풍덩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 구성

시집은 **1장 그대의 불도장, 2장 육감 된장국, 3장 인생 맛 젤리, 4장 투명한 가족 등 네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약 120 페이지로 50여 편의 시가 실릴 예정입니다. 각 장에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 맛깔 나는 음식과 삶의 향기, 고단한 하루 끝 달콤한 휴식, 따뜻한 가족과 반려 동물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소박한 일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감각적인 자유시와 촌철살인 n행시로 만나 보세요.



목차

1장 그대의 불도장

시들다	11
그대로(路)	13
선통기	15
복숭아씨와 황도현	17
눈도장 푸른	19
단웃날	21
목소리 온도계	23
모기의 사망	25
바사지	27
고장 난 자판기	29
곰작은 고백	31
보사노바	33
바른 정바	35

2장 육감 된장국

한여름 밤의 만찬	39
육감 된장국	41
소나기	43
김바다의 전통찻집	45
담백한 그대	47
어우름	49
달집	51
바나나 잎 책갈피	53
단산수	55
프아	57
키리풍	59
여름 초콜릿	61
청양고추	63

모기의 사랑

밤새 귓전을 땀돌았는데
멀리 내쫓기만 하는구나
이번 생은 인연이 아니겠지만
한 번은 찔러보고 떠나려 한다

설령 내가 그대를 깨물지라도
흡혈귀로 변하는 것은 아닐 터
내 마음 빨갱게 부어 오르면
한 번은 어여삐 쳐다봐 주길





■ 인터넷 시평

@sssda0314

고단한 하루의 끝과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일을 어쩔 이리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였던 것을 아주 딱 맞게 표현해주신 것 같아 격하게 공감하고 감탄합니다~

@heojinsuk_sangsuru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공감이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지나온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신 듯합니다 제 마음인 듯 합니다~~ 멋진 표현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ijeongyun_n

가슴에 불길이 번지는 듯 뜨거워지네요...가족의 일상을 담백한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뼈 국물처럼 깊게 우러나오는 가족애가 느껴져서 아프기보단 묵직한 부러움으로 다가오네요.

@z__z_eun

곰젤리 맛있어요~인생도 연하기만 하면 재미 없어요. 때론 질긴 것도 맵고 쓴 것도 먹어줘야 진짜 맛있는 맛을 느끼고 골라낼 수 있잖아요~^^울 파란달님 글은 늘 생각하게 하고 공감하게 해주셔서 감동입니다.